

뉴캐슬병 해외 발생동향과 국내 비발생 유지를 위한 예방접종 철저

뉴캐슬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계군은 폐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함께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과거 주기적으로 전국을 강타하면서 국내 양계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던 뉴캐슬병은 부화장 및 농장의 백신 의무 접종 정책이 강력히 시행되면서 점차 감소하여 2010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 보고가 없는 상황이어서 완전히 근절된 질병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동남아, 중국 등 주변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이스라엘, 아프리카에서도 발생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도 최근 뒤뜰(backyard) 사육 농가에서 계속 뉴캐슬병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발생이 없었던 미국에서도 작년 5월부터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뒤뜰(backyard)에서 사육하는 닭이나 소규모 가금농장 등에서 계속 발생이 확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지역은 사육하는 가금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사육수도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backyard 사육 농가가 밀집해 있다. 또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이를 통한 유입 가능성도 높다. 과거 멕시코에서



이 지 연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질병과
수의연구관

밀수된 앵무새 등으로 인해 뉴캐슬병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그나마 폭발적인 전염이 없는 것은 전업농가는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뉴캐슬병은 백신 접종에 의한 예방효과가 좋아 백신 접종으로 면역만 제대로 형성된다면 질병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질병 발생은 주변국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현재 발생이 없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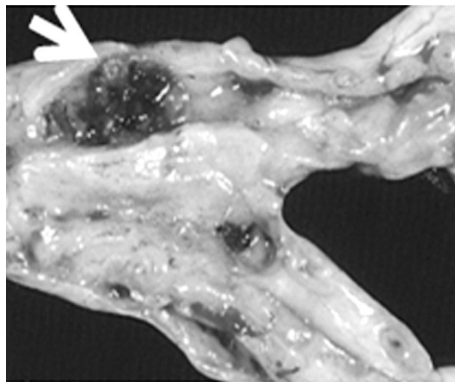
표 1. 미국 3개주(7개 county) 발생 누적 건수('18~'19.4)

주(State)	County	발생 건수
California	San Bernardino	132
	Riverside	246
	Ventura	1
	Alameda	1
Arizona	Coconino	1

출처 : 미국 농무성 홈페이지



▲ 머리를 끄는 신경증상(사경)



▲ 맹장 편도 출혈 소견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도 뉴캐슬병 비발생 상황임에도 양계농장에서 뉴캐슬병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청정국이라 하더라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뉴캐슬병 발생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뉴캐슬병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청정국은 없다. 즉 백신 접종 청정국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뉴캐슬병은 언제든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어느 순간 국내로 유입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항체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항체 수준에 따라 발생 시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고역가의 충분한 항체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접종 횟수뿐만 아니라 음수 백신 접종요령 등 정확한 접종 방법을 숙지하고 백신 접종 효율을 증진시

킬 수 있도록 하여 항체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뉴캐슬병 백신은 1일령에 부화장 분무 접종 및 2

주령에 농가에서 음수 또는 분무 접종을 실시하여 기초 면역을 형성시켜 주는 게 중요하며 시산 2~3주 전에 사독오일백신을 접종하여 항체가를 높여주고, 추가적으로 산란기간 중에는 6주마다 생독백신을 보강 접종하여 충분한 항체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화장 및 농장의 백신 의무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육계는 출하 시, 산란계는 연 1회 혈청검사를 통해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고 기준에 미달될 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과태료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양계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확한 백신 접

종은 필수이다. 또한 해외 발생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 backyard 농가가 뉴캐슬병 발생 및 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백신 의무 접종 및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질병 방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뉴캐슬병은 현재 비발생이라고는 하나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철저한 농가 차단 방역과 균일하고 높은 수준의 항체가를 유지하여 언제든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뉴캐슬병으로부터 우리나라 양계산업을 지켜나가자. **양계**

농장주와 같은 마음으로 청소해드립니다.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에어덕트 전문

부성축산

대표 : 이재완

대구시 북구 관음동

TEL : (053) 324-7752

FAX : (053) 324-7736

H·P : 010-4000-9023

010-4805-7752